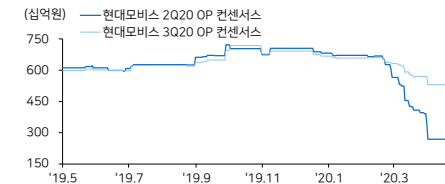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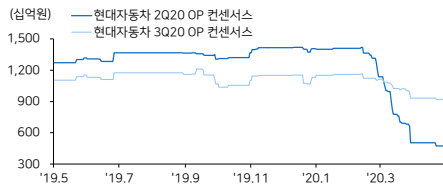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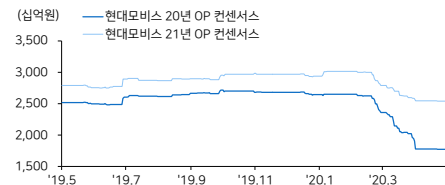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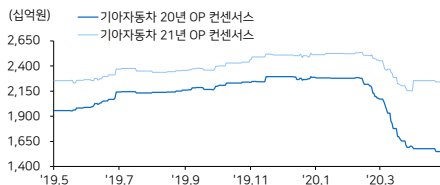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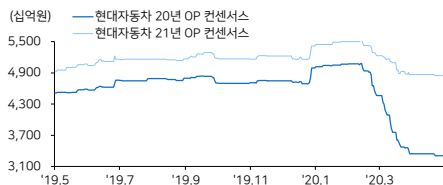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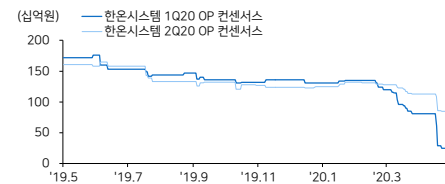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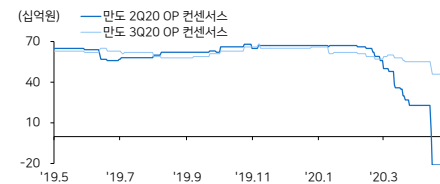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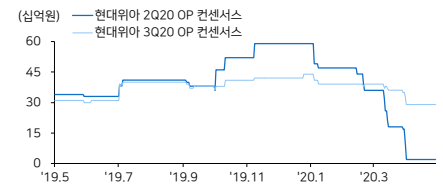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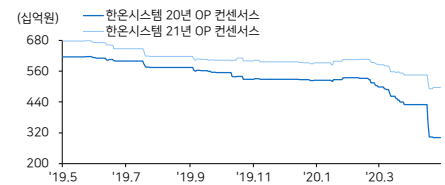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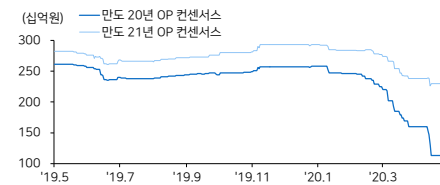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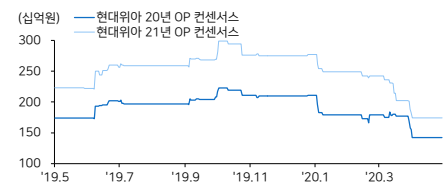


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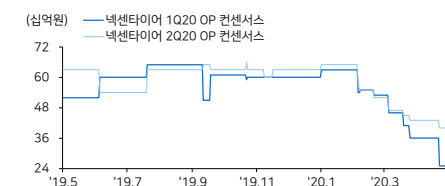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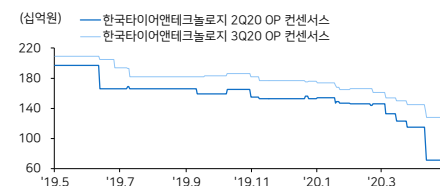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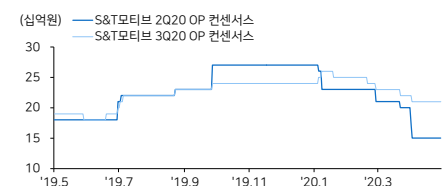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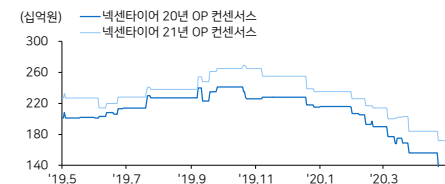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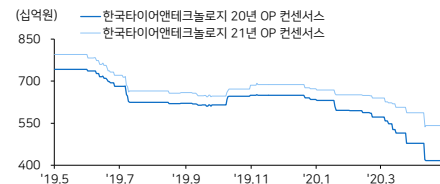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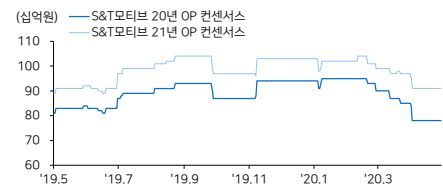
현대차 / 기아차 / 현대모비스



현대위아 / 만도 / 한온시스템



S&T모티브 / 한국타이어 / 넥센타이어



자료: Bloomberg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국내외 주요 뉴스

멕시코 자동차산업 생산 재개...기아차 멕시코도 26일 재가동 (연합뉴스)

기아차 멕시코 공장을 비롯해 코로나19 사태로 멈췄던 멕시코 내 완성차와 부품 공장들이 가동을 재개 중. 기아차 멕시코는 25일(현지시간) 가동 준비를 거쳐 26일부터 생산을 재개한다고 밝혔.

<https://bit.ly/36ryTVW>

기아차 광주 2공장, 수출 악화로 내달 5일까지 휴업 (파이낸셜뉴스)

수출 물량이 많이 쏠릴 수 있는 차량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기아차 광주공장이 6월 5일까지 제2공장의 문을 닫기로 함. 기아차는 수출 물량이 대폭 줄어들면서 애초 25일부터 29일까지 예정된 휴업을 내달 5일까지 연장.

<https://bit.ly/2ZCSJg2>

세계 자동차공장 되살아난다...생산공장 가동률 28.8%→83.5% 상승 (뉴시스)

주요 자동차 생산국들의 완성차 공장 가동률이 한 달만에 28.8%에서 83.5%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. 한국자동차산업협회(KAMA)에 따르면 수출 비율은 83.5%로 4월 중순(4월16일) 28.8% 보다 54.7%p 상승한 것으로 확인.

<https://bit.ly/2XwVhnd>

20분 충전, 500km 주행... 속도내는 '진짜 전기차' 전경 (조선닷컴)

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차세대 전기차 출사가 코로나 사태 등 여러 변수로 내년으로 늦춰지고 있음. 이 때문에 올 한 해는 일찍이 차세대 전기차를 개척한 테슬라의 독주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옴.

<https://bit.ly/2M0bGRY>

현대차, 중대형 SUV 하이브리드 ...북미·유럽 출격 (예열드경제)

현대자동차가 중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(SUV) 신차로 하반기 북미·유럽 공략에 속도를 낸다. 하이브리드카(HEV)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카(PHEV) 등 라인업을 확대해 코로나19로 변화한 소비자들의 성향에 대응한다는 전략.

<https://bit.ly/3d3Lxxg>

삼성전자-현대차, '구글제' 불통...산업계 '외교 노력 시급' (파이낸셜뉴스)

OECD가 다국적 IT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차원에서 마련 중인 디지털세(구글세) 적용 대상인 TV, 가전, 자동차 등 소비자 관련 제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삼성전자, 현대차 등 주요 한국 기업들에 비상이 걸림.

<https://bit.ly/3eJs8Zo>

中 자동차 업계 판촉품 난무...가격 경쟁 격화 불보듯 (연합뉴스)

로이터통신은 중국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10여개의 주요 업체들을 취재한 결과 모든 곳에서 50만원 상당의 여러 판촉품을 강행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25일 보도.

<https://bit.ly/2B1WYHN>

美 자동차 업계, 친환경 규제 완화 두고 법적 공방 이어져 (IT조선)

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을 대변하는 자동차혁신연합(AAI)가 미 트럼프 행정부의 친환경 규제 완화를 지지했다. 그러나 추가적인 규제 완화에는 반대한다는 입장도 전함.

<https://bit.ly/3d2T6o5>

Compliance Notice

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게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